

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성찰과 방향*

Reflection and Direction of Lifelong Learning Activities in the Public Libraries of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I. 서론	1. 도서관 핵심역량과 평생학습의 연계성 강화
II. 평생학습과 공공도서관의 상관성	2. 디지털 정보해득력 계고프로그램의 제공
1. 평생학습의 스펙트럼과 목적	3.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프로그램의 확대
2. 평생학습과 공공도서관의 상관성	V. 결론 및 제언
III. 공공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기반과 성찰	
1. 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제도적 기반	
2. 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성찰과 시사점	
IV. 국내 공공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방향	

초 록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와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개인과 집단에게 평생학습 문화활동, 정보해득력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활동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지향성을 모색하였다. 미래의 공공도서관은 핵심역량과 평생학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해득력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특히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령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한다.

주제어: 평생학습활동, 평생교육, 공공도서관, 정보해득력, 정보격차

ABSTRACT

The public library is the local centre of information, the gateway to knowledge. Based on these identities, the public libraries should provide a basic condition for lifelong learning, cultural activities, and information literacy skills of the individual and social group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flect the lifelong learning activities of public libraries and suggest it's directions in Korea. The lifelong learning of public libraries for the future needs to focus on a closer connection with library core competences, supporting information literacy, reducing and bridging the digital divid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 aged.

Key Words: Lifelong Learning Activities, Lifelong Education, Public Library, Information Literacy, Digital Divide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접수일: 2006년 11월 24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1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21일

I. 서론

인간의 생주이멸은 자기학습의 궤적이다. 그래서 인생 자체를 배움으로, 삶을 학습의 연속으로 규정할 정도로 배움과 학습은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라 할 수 있다. 다만 배움과 학습이 제도권 교육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양태나 방식을 불문하고 사회교육, 지역사회교육, 성인교육, 생애교육, 계속교육, 순환교육, 비공식 교육, 비정형적 교육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그 가운데 약 30년 전부터 UNESCO, OECD, EC 등의 노력과 주도로 범용되던 사회교육 내지 성인교육은 최근에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에 이어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 용어는 전자들에 비하여 자기주도의 능동적 및 자발적 학습활동을 강조하며, 일체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활동과 학습기능을 포괄한다. 요컨대 평생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식, 기술, 능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방위적 교육 및 학습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고답적 함의의 사회교육이 대상과 방법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여 평생교육 내지 평생(생애)학습으로 회자되고, 21세기 교육정책의 핵심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그리고 변화무쌍한 사회에 적응하려면 일생동안 다양한 학습자원과 교육기회를 이용하여 지식과 능력을 축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의 지식기반경제 내지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히 취업기회의 증대, 시민권의 확보 및 주체적 권리행사, 사회참여와 통합,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촉진시킨다.

이러한 전방위적 평생학습 기능을 강조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히 존재하여 왔다. 그 가운데 가장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사회적 장치 중의 하나가 도서관이며, 특히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은 불가분의 연계성을 지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적 기조와 전략,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각각 제공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적 등은 상당한 모순과 파행, 혼란과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학습과 공공도서관의 상관성, 법제적 기반과 최근 활동성과를 성찰한 다음에 바람직한 지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평생학습과 공공도서관의 상관성

1. 평생학습의 스펙트럼과 목적

인간의 배움과 학습은 일생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출현한 용어는 매우 다양

하다. 그 동안 사회교육, 계속교육, 순환교육, 비형식교육, 성인교육, 생애교육 등으로 회자되다가 사회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에 이어 최근에는 평생학습이 범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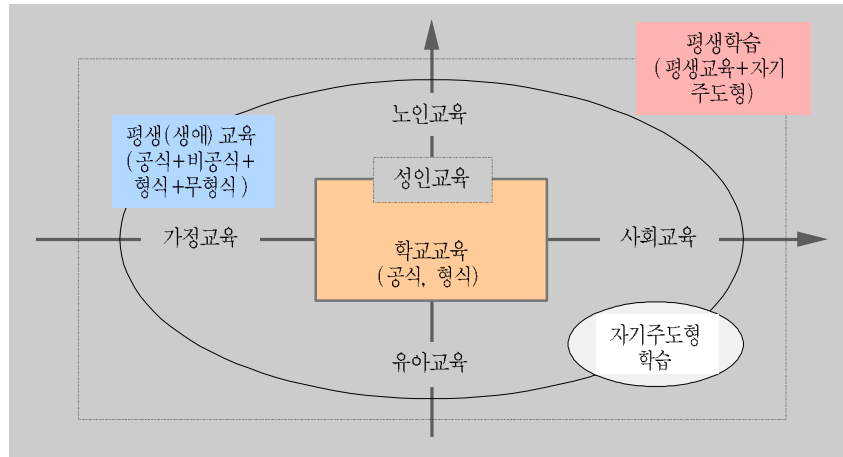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은 「평생교육법」의 전신인 「사회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성인을 위한 학교교육도 범주에 포함되는 점이 사회교육과의 차이점이다. 반면에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연하면 유아에서 노인까지의 모든 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가정에서 사회까지의 제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모든 교육활동을 총칭한다. 이 용어는 1949년 제1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1970년에 랑그랑(Lengrand) 보고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면서 본격화되었고 1972년 포르(Faure) 보고서에서 공식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어 최근에 범용되는 평생학습은 유럽연합이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통합 및 경제발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의도로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대체 내지 확장시킨 것이다. 부연하면 ‘오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지식, 기술, 능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방위적 교육 및 학습활동’ 요컨대 자기주도의 능동적 및 자발적 학습활동을 강조하며, 일체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활동과 학습기능을 포괄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이 공식적 시스템을 강조하는 제공자 지배적 모형이라면,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비형식·무형식(non-formal and informal)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포괄적 범주와 함의가 내재된 평생학습의 스펙트럼을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말을 기준으로 국내 200개 대학에 개설된 평생학습기관의 명칭을 보면 평생교육원이 15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교육원으로 38개, 기타 종합교육관·문화센터·시민대학이 각각 1개로 여전히 평생교육이란 용어가 지배적이다. 일본에서는 생애학습이, 중국과 대만에서는 종신학습이 범용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공동체적 차원을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포괄하는 통합성,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 학습성, 학습하는 시간·장소·방법·평가의 탈정형성을 특징 내지 전제조건으로 삼는 평생학습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연계성, 민주사회의 시민성을 함양²⁾ 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1) OECD, *Lifelong Learning : Policy Brief*(Paris : OECD, 2004) ; Rosa Maria Torres, *Lifelong Learning* (Stockholm : Sida, 2003), p.239.

2) J. Aitchison, “Lifelong Learning in South Africa : Dreams and Delu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23, No.6(2004), pp.517-544.



<그림 1>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스펙트럼

2. 평생학습과 공공도서관의 상관성

지난 세기 후반부터 급부상한 지식기반사회는 종래의 성인교육이나 평생교육을 평생학습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주도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와 국가단위의 연합체로는 UNESCO, OECD, EC(EU의 전신)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각 주체가 규정한 평생학습의 개념과 차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간에는 평생교육의 확장성, 자기주도형 학습, 자발적 참여, 정보해득력의 중요성, 도서관의 역할강화가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특히 지역사회를 봉사권역으로 삼는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평생학습이 지상명제인 것처럼 전시행정에 진력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을 초래하였고, 많은 광역시도의 지역대표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하여 본질적 정체성에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일선의 공공도서관도 표피성 문화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과연 포장위주의 행정논리와 내용부실, 주객전도형 경쟁지상주의가 무차별적으로 대입되는 작금의 현상은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천박성을 부추기는 논거는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반추가 필요하다. 그 일단은 최근에 교육학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 생산된 다수의 학위논문에서 포착할 수 있다.

우선 교육학계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의 상당수가 ‘공공도서관 = 평생학습센터(관)’로 규정하거나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지를 집약하면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장치이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내지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정보제공이나 문화기능은 상위가치인 평생학습으로 귀착된다고 주장한다. 평생학습을 지상과제 내지 지

고지순의 가치로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문헌정보학계 학위논문은 대다수는 ‘공공도서관 = 지식정보제공센터 > 평생학습센터’로 규정하거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배경은 ‘공공도서관의 3대 기능을 지식정보 제공, 평생교육 지원, 문화활동 전개’로 규정함으로써 각각을 등가성 차원으로 간주하거나 지식정보의 수집·보존·제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자는 화해일치나 화이부동을 위한 진솔한 논의와 심층연구를 외면한 채 우권해석을 전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수행하는 평생학습활동, 환언하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의 상관성을 어떻게 해명하고 지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한 실상과 논거를 다각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은 모든 교육의 합집합이고 최상위 개념이다. 그러나 교육수준별 각종 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할 수 없고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있어도 대학 자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할 수 없듯이 도서관이 평생학습활동을 전개하더라도 사회적 장치로서의 정체성을 평생학습기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평생학습활동은 교육 및 부대시설, 교양·체육시설, 문화기관(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행정기관 등이 저마다 조직적 정체성과 특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도이다. 환언하면 각자의 핵심역량과 장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생학습은 내실을 기할 수 없고 상보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복과 낭비가 불가피하고 그 폐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셋째, 국내 도서관이 전개하는 평생학습활동은 「도서관법」 제1조(이 법은 ...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근거한다. 따라서 법리상 평생교육의 증진'은 문화발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서관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단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넷째, 특히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 내지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는 평생학습 지상주의를 선도하는 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국, 평생학습정책과)의 정책적 기조가 광역시도 교육감 소관의 공공도서관에 대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서개발보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에 더 적극적이고, 도서관행사나 세미나보다 평생학습축제에 더 많이 참여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핀란드, 대만 등을 제외한 대다수 문화선진국은 ‘공공도서관을 지식문화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도처에 산재하는 교육 및 문화기관의 존재이유, 고유한 정체성과 상보성의 중요성, 도서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핵심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평생학습과 공공도서관의 상관관계를 ‘전자가 후자의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전자를 최상위의 핵심기능’으로 인식 내지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모든 교육 및 문화기관을 평생학습이라는 거대담론으로 포장하려는 교조주의적 사고와 행태는 평생학습의 전제조건인 통합성과 탈정형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

서 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여러 핵심기능 중의 하나로 간주하되, 소장자료와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여타 교육 및 문화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Ⅲ. 공공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기반과 성찰

지난 세기말부터 평생학습이 국제사회의 가장 주목받는 교육담론으로 인식됨에 따라 OECD 선진국은 평생학습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개인차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평생학습을 위한 법제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제도적 기반과 활동내용을 성찰하고 선진국의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제도적 기반

가. 법제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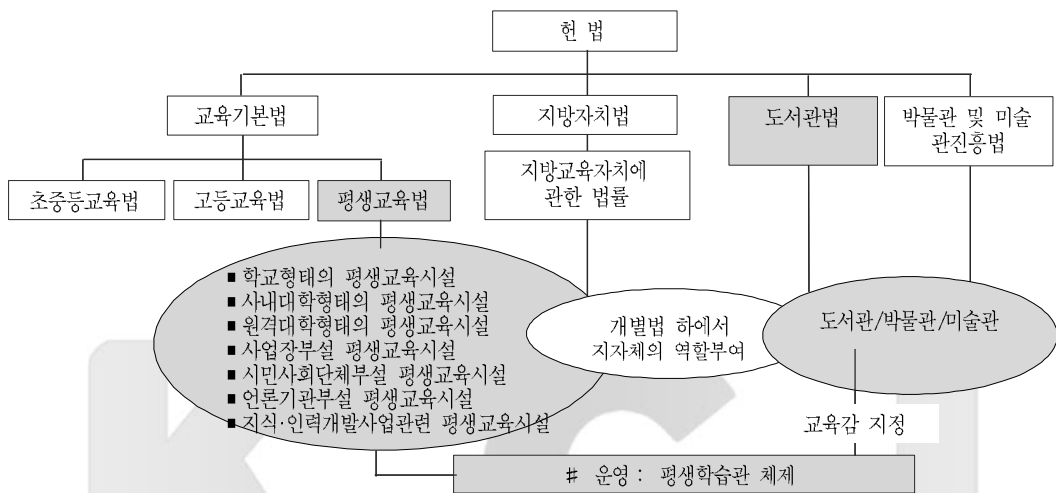
국내에서 평생학습활동을 위한 최상위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이고, 이에 근거한 「교육기본법」 제10조(사회교육) 제1항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이 「사회교육법」의 대체법률로 개정·공포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이고 관계법령으로 「평생교육법」을 들 수 있다.

먼저 「도서관법」 제2조(정의) 4호는 공공도서관의 존재이유를 4대 목적(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평생교육)의 증진으로 규정한 반면에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3호는 공공도서관을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부언하면 전자는 공공도서관을 다목적 수행기관으로 정의하고 ‘평생교육의 증진’을 그 하나로 규정한 반면에 후자의 법리적 함의는 여러 평생교육시설 중에 공공도서관이 포함되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는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를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하였지만, 이 법을 적용받는 시설의 유형을 제4장 제20-27조에 걸쳐 ‘학교형태, 대학형태(사내, 원격), 부설형태(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형태’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법」이 규정한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동법 제13조(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6개 광역 시·도의 공공도서관

관을 제2차(2002~2006) 지역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하거나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평생 교육기능을 주관·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평생교육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그리고 다양한 조직체에 실재하는 평생교육시설의 법제적 근거와 상호 관련성을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평생학습의 법적 체계와 해당시설의 관계

나. 추진주체와 지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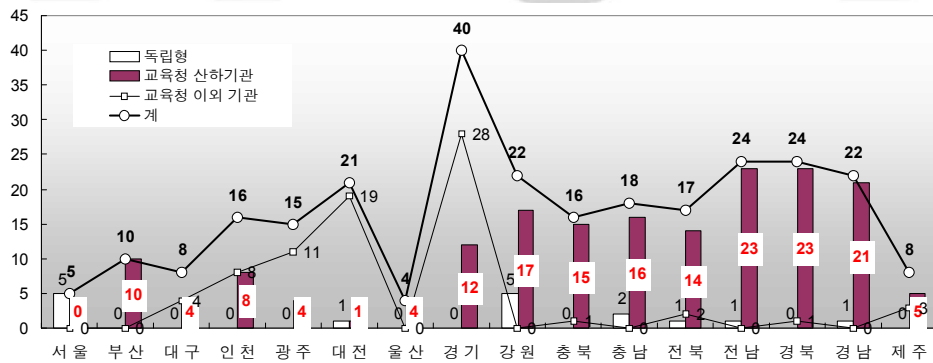
국가 전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정점으로 국내외의 무수한 기관들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 가운데 평생교육을 전담·지원하는 핵심기구는 국가의 평생교육센터, 광역시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시·군·구의 평생학습관이다. 이들의 설치근거, 관할기관 및 운영방식, 주요 업무는 <표 1>과 같다.

<표 1> 평생학습 전담·지도기구의 현황

근거	명칭(수준)	관장기관 및 운영방식	조직	주요 업무
제13조 제1항	평생교육센터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위탁)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정보수집·제공
제14조	평생교육 정보센터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교육감 추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연구원, 문화회관 등) 	26개 기관 (컨소시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지역단위 연계체제 구축 정보제공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발
제13조 제3항	평생학습관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교육감 지정(도서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문화회관,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255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학습상담

먼저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 제13조 제1-2항에 근거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무부처이고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 국가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광역시도 수준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시도 교육청이 주무기관이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지역센터는 국가의 중앙센터와 기초지자체의 평생학습관을 중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군·구의 평생학습관은 제13조 제3항에 의거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평생교육 정보제공, 학습상담' 등을 담당한다. 이처럼 평생교육 전달·지원기구는 중앙의 평생교육센터, 광역 시·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의 평생학습관이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평생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에는 상당수의 공공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시도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총 26개의 지역평생교육센터 중에서 도서관(평칭이 변경된 평생학습관 포함)은 11개관(42.3%)으로 절반에 근접하고 있다.³⁾ 그리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평생학습관은 <그림 3>처럼 전국에 총 270개관이 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개관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남과 경북이 각각 24개관이며, 소속기관별 분포는 교육청 산하가 63.5%(277개관)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현황

이러한 평생학습관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신설되거나 도서관, 시·군 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

3) 총 26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유형별 분포는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11개(42.3%), 대학 및 전문대학이 11개(42.3%), 문화회관이 3개(11.5%), 연구원이 1개(3.9%)이다.

경우가 <표 2>에서 57.4%(155개관)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독립형(평생학습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정보관 등)으로 6.3%(17개)이다. 기타 문화원, 사회복지관, 대학, 초·중등학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생회관 등도 기초지자체의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⁴⁾

<표 2> 평생학습관의 명칭별 현황

명칭	평생학습관(원)	도서관	문화원(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	연수(수련)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물관	사회복지관	연구원	기타
기관수	17	155	16	7	14	9	5	8	1	15	1	22
비율(%)	6.3	57.4	5.9	2.6	5.2	3.3	1.9	3.0	0.4	5.6	0.4	8.1

한편 평생교육을 위한 행정조직은 중앙의 행정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의 그것은 시도 교육청이 주도한다. 지방에는 시도 단위의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 3>처럼 시도 교육청 산하에는 중등교육국-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계로, 시·군·구 단위에는 학무국-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계로 이어지는 행정부서가 관장하고 있다.

<표 3> 시도 및 시·군·구의 평생교육 주관부서와 업무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주관부서	수행업무	주관부서	수행업무
중등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제도 관리 및 개선 • 공공도서관진흥육성 •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지도감독 •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 <li style="text-align: center;">⋮ • 학교, 지역도서관 및 학원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도조언 •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 	학무국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설치 및 지도감독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폐지 및 지도감독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li style="text-align: center;">⋮

2. 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성찰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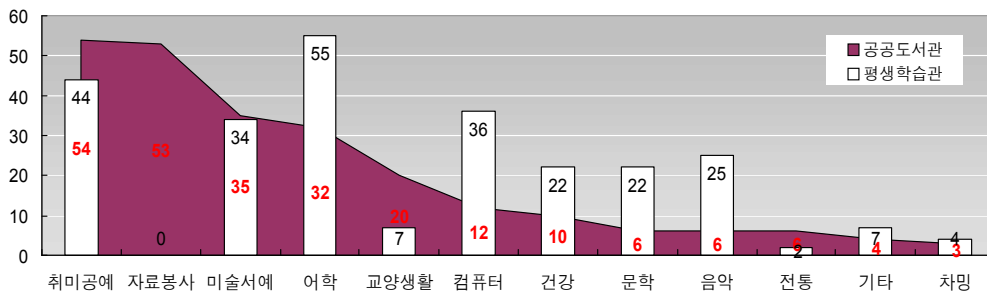
국내의 경우, 2004년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270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수는 평균 28개이고, 참여 인원은 평균 12,800명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대다수 공공도서관이 소속된 교육청 산하기관의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인원은 각각 19개와 7,482명이었다. 다시 광역지자체 산하의 각각 16개 지역대표도서관과 평생학습관으로 제한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실시현황을 비교하면

4)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평행교육백서*(서울 : 동부, 2005), p.39.

<표 4> 및 <그림 4>와 같다.

<표 4> 광역시도 대표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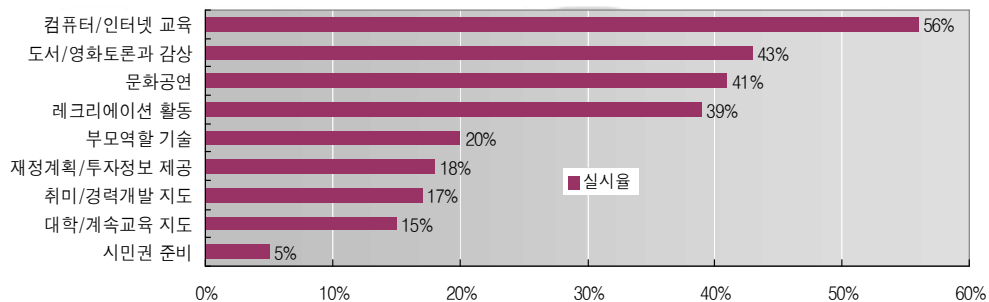
지역대표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유형 (종)	프로그램 내용	강좌 좌	비율 (%)	비율 (%)	강좌 좌	프로그램 내용	유형 (종)
건강 (8)	노인건강, 마인드맵, 생활건강, 수백과 건강, 수지침, 여성건강, 정신의학강좌, 차명디스크	10	4.2	8.4	22	볼링, 사상체질식사법, 지압, 헬스 디스크, 역학, 에어로빅 등	건강 (11)
교양생활 (7)	시민교양강좌, 부모역할지도, 생활에 질 신문활용교육, 가족신문만들기, 자동차 관리, 족보만들기	20	8.3	2.7	7	교양강좌, 부모역할지도, 예절과 다도, 신문활용교육	교양생활 (4)
자료봉사 (6)	경로당대출, 공원문고, 병원순회대출, 이동도서관, 책들러보기, 휴양림문고	6	2.5	-	-	-	-
문학 (14)	독서지도, 독서회, 구연동화, 문예창작, 문학강연, 문학기행, 시낭송, 이야기교실, 작품속 인물에 편지쓰기, 향토시인 작품전, 고전강좌, 글짓기, 독서교양강좌, 독서문화탐방	53	22.0	8.4	22	수필문학, 독서지도, 독서회, 이야기교실, 글짓기, 문예창작, 고전강좌, 구연동화	문학 (8)
미술서예 (8)	미술감상, 사군자, 서양화, 서예, 수채화, 어린이미술, 유희, 한국화	35	14.5	12.9	34	뫼생, 사군자, 서양화, 서예 유희, 수채화, 한국화, 민화, 산수화	미술서예 (9)
어학 (6)	어학교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글, 한문	32	13.3	21.0	55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토플, 토익, 텡스, 한문, 한글	어학 (8)
음악 (5)	가요교실, 뮤지컬, 민요, 음악감상, 관소리	6	2.5	9.5	25	가곡, 단소, 대금, 음악감상, 민요, 바이올린, 전통음악교실, 플룻, 장고, 기타, 가요교실	음악 (12)
전통문화 (3)	전통문화, 전통예절, 풍수지리	6	2.5	0.8	2	전통문화, 전통예절	전통문화 (2)
차명(2)	미용강좌, 헤어컷	3	1.2	3.4	9	미용강좌, 피부관리, 메이크업	차명(3)
취미·공예 (21)	탁종이, 비디오, 양재, 영화감상, 사진 스텐실, 한지공예, 홈패션, 도예, 바둑, 종이접기, 켈트, 꽃꽂이, 지점토, 염색 공예, 풍선공예, 생활한복...	54	22.4	16.7	44	탁종이, 비디오, 양재, 영화감상, 사진, 스텐실, 한지공예, 홈패션, 도예, 바둑, 장기, 종이접기, 켈트, 꽃꽂이	취미공예 (15)
컴퓨터(1)	컴퓨터	12	5.0	13.7	36	컴퓨터	컴퓨터(8)
기타(2)	문화학교 전시, 인형극, 재과제빵	4	1.7	2.7	7	전시, 감상회, 고전무용, 발레	기타(4)
계	84	241	100	100	263	84	계



<그림 4>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실시현황(강좌수) 비교

구체적으로 양자의 프로그램수는 각각 84종이다. 공공도서관은 총 241개 강좌를 개설하는 가운데 취미 및 공예(22.4%)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문학강좌(22.0%), 미술 및 서예(14.5%), 어학(13.3%)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도서관 자료봉사는 전체의 2.49%에 불과하다 평생학습관은 총 263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그 빈도는 어학(21.0%), 취미 및 공예(16.7%), 컴퓨터(13.7%), 미술 및 서예(12.9%)의 순이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문학강좌를, 평생학습관은 컴퓨터강좌를 더 많이 개설하는 차이가 있을 뿐, 양자의 프로그램 유형과 실시현황은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문화선진국인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어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연방 교육부가 2002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유형과 제공하는 비율은 <그림 5>와 같이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도서/영화토론 및 감상, 문화공연, 레크리에이션 활동(여행, 취미 등), 부모역할지도, 재정계획과 투자정보 제공, 고용 및 경력개발 가이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⁵⁾



<그림 5> 미국 공공도서관의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실시 현황(%)

이처럼 양국에서 성인교육 내지 평생학습용으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되, 문자해독력 프로그램과 기타 문화프로그램을 엄격히 구분할 뿐만 아니라 전자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이 다른 무수한 평생학습시설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교육 및 문화시설이 제공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국내 공공도서관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학생들의 공부방 내지 독서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센터 및 학습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평생교육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다. 비록 각종 프로그램(기초 및 교양, 직업기술 전문, 건강 및 보건, 가족생활, 시민생활, 여가)에 '교육'이란 명칭이 부여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다른 공공

5)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Programs for Adults in Public Library Outlets*(Washington, D.C. :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p.13.

및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통속적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도서관 = 평생학습관 = 문화시설'로 인식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지원 그리고 도서관계의 무작정 수용자세와 경쟁심리가 초래한 결과이다.

비록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와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제공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정체성이나 존재이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 보완기능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재의 대다수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 문화회관, 각종 학원, 언론 및 종교시설, 심지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메뉴로 실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제공기능을 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보센터로서의 핵심기능과 부차적 기능을 동일시하거나 왜곡시킬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한 도서관의 본질과 정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도서관은 도처에 산재하는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달리, 풍부한 장서와 고수준의 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차별적인 자주형 평생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센터 및 평생학습 지원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대다수의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이 상업화에 몰두하는 차이에 도서관은 정보접근 및 이용의 취약 내지 소외계층에게 울타리가 되고 공공성을 견지할 때 평생교육의 건강성도 보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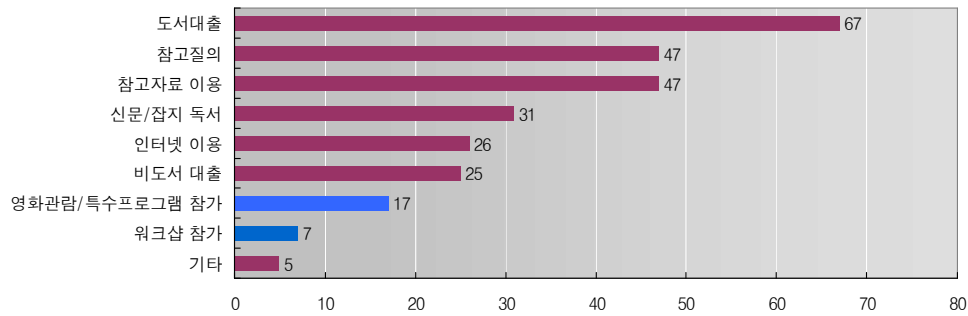
Ⅳ. 국내 공공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향방

1. 도서관 핵심역량과 평생학습의 연계성 강화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향상과 복지구현을 위한 지적 보고인 동시에 정보자료의 요람으로서 지식정보의 제공, 문화활동의 전개, 평생학습의 지원 등을 통하여 기본권 신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은 공공도서관이 당대의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조직·보존하여 통시적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때 가능하다. 이를 귀납적으로 접근하면 공공도서관의 핵심기능은 지식정보의 체계적 수집, 정교한 조직화와 축적, 적시적 제공서비스이며, 여기서 배태되는 핵심역량이 누적성과 역사성을 함축한 정보자료,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인력, 수준높은 정보서비스, 디지털 검색·이용시스템이다. 그리고 핵심역량이 수렴 및 발현과정을 거치면 다른 교육 및 문화기관과 차별화되는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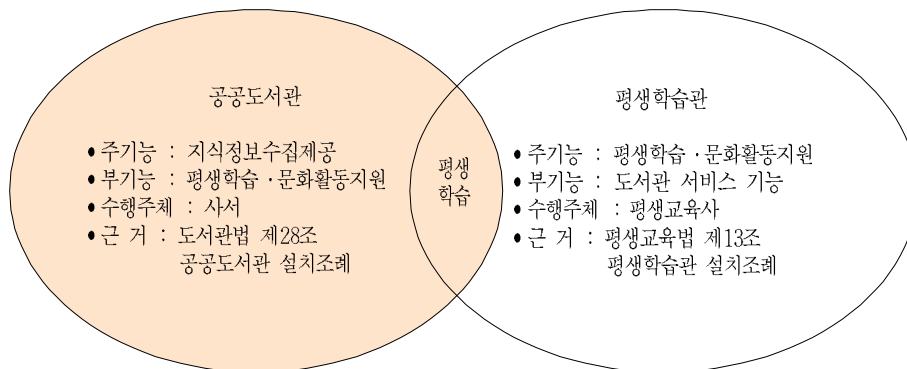
이러한 전제 위에서 지역주민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이용할 때 정보입수, 문제해결, 업무 또는 활동시간의 절감, 정보탐색 및 정보기술의 개선 등의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도 정보해득력 제고, 연구활동의 개선, 행동양식의 변화(독서 빈도, 정보의존 및 이용도 증가 등)를 기대할 수 있다.⁶⁾ 실제로 2002년 3월에 미국도서관협회의 의뢰로

KRC Research & Consulting이 성인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그림 6>처럼 자료이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⁷⁾



<그림 6> 미국 성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평생학습활동을 성찰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핵심역량을 최대한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기 보다는 거대 담론의 무작정 수용심리와 교조주의적 정책논리에 편승하여 부실 투성이의 프로그램을 남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생학습과 문화활동의 경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예컨대 다크종이, 비디오, 양재, 스텐실, 한지공예, 홈패션, 도예, 바둑, 종이접기, 퀼트, 꽃꽂이, 지점토, 염색공예, 풍선공예, 생활한복, 제과제빵, 가요교실, 차밍디스크, 미용강화, 헤어컷 등)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공공도서관의 존속성과 정체성에 어떤 폐해를 초래할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림 7>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비교 : 수행기능의 비중과 근거법령

6) Roswitha Poll, "Impact/Outcome Measures for Libraries," *Liber Quarterly*, Vol.13, 3/4(2003), pp.329-330.

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Your Library : Attitudes Toward Public Libraries Survey,"
 <http://www.ala.org/ala/pressreleasesbucket/2002_Attitudes_Towards_Public_Libraries.pdf>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은 <그림 7>에 비교·도시한 것처럼 근거법률과 수행기능의 비중이 전혀 다르다. 특히 주기능과 부기능이 상반되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를 평생 학습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모든 업무와 기능이 평생학습을 지향하고 수립된다는데 동의한다면 구태여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최근에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제8항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공공도서관계에 조종을 울렸던 전대미문의 사건, 즉 ‘간판 바꾸기’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법리적 정신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제공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을 지상명제로 간주하여 무차별적으로 개설하는 오락문화용 프로그램은 자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소장자료 및 시설(공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료중심의 새로운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는 소외계층인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해득력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독서문화의 체득화·대중화·생활화,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정착, 가정의 독서공간 꾸미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시설제공 위주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복지시설, 문화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여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차별적이면서도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요체인 동시에 지향성이다.

2. 디지털 정보해득력 제고프로그램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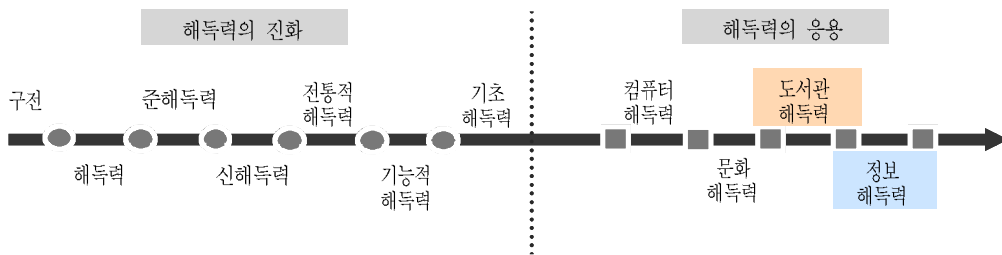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기술이 초래한 지식기반사회의 무수한 키워드 중에 가장 주목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이 국내에서 정보문해 또는 정보활용능력 등으로 역칭되는 정보해득력(information literacy)이다. 이 용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그 진화와 응용의 스펙트럼을 도시한 <그림 8>을 보면 범주와 내용이 분명하다.

다만 그 대상을 도서관계로 제한하면 ALA에서 “개인이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의 집합체”⁹⁾로 정의한 것이 가장 범용적이다. 부연하면 정보해득력은 ‘각종 정보기술과 통신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개인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를 추적·평가·조합·활용하는 총체적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정보해득력은 평생학습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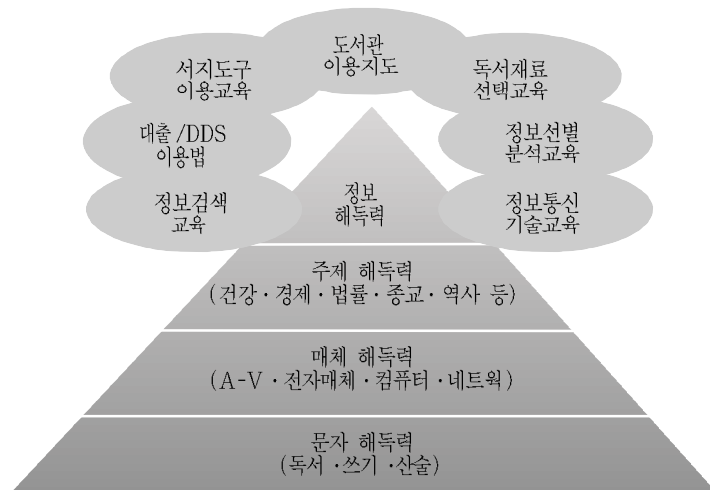
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Final Repor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http://www.ala.org/Content/NavigationMenu/ACRL/Publications/White_Papers_and_Reports/Presidential_Committee_on_Information_Literacy.htm>

과 자주학습의 부분집합으로 존재하지만 요체에 해당하며,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비롯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교육·문화·체육시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국가발전과 국제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림 8〉 해득력(literacy)의 진화과정과 스펙트럼

이러한 함의와 중요성 때문에 19세기 초반에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문자해득을 위한 교육시설로서의 입지를 다져 1930년대에 '민중의 대학'으로 회자되었듯이 디지털 시대의 공공도서관은 문자해득력에 컴퓨터 활용능력을 결합한 정보해득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평생학습의 핵심은 〈그림 9〉에 도시한 문자해득력에서 매체 및 주제해득력을 거쳐 정보해득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평생학습과 정보해득력은 정보사회의 삶을 견인하는 양대 지주이므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핵심메뉴도 정보해득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림 9〉 정보해득력의 계층구조와 개념도

한편, 2003년 9월에 캐나다의 Julien과 Breu¹⁰⁾가 전국 836개관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정보해득력 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응답율 18.2%, 152개관)한 결과, 정보접근 및 제공의무, 교육지향적 사이트, 전통적 역할 정보와 접근서비스 등을 이유로 정보해득력을 공공도서관의 책임 사항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기술의 미소유, 과거 교육의 미수혜, 사회적 및 기술적 변화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용이성, 다양한 정보자료의 취급 등을 이유로 정보해득력은 성인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요컨대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학습은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시설과 공간을 공공도서관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은 주로 평생학습 및 생활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며, 정보해득력 교육의 거점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관도 지역주민의 정보해득력 강화를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주력 메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을 빌미로 다른 무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정보해득력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공공도서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역주민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이용한 개인생활 및 사회활동을 개선하는데도 취약하므로 다음에 적시한 기본메뉴에 선진국형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다양한 평생학습자료의 제공·지원 프로그램 : 성인의 자주학습용 자료와 정보의 제공 자녀 교육 및 학교교육의 지원, 학교도서관을 위한 기관대출 및 서비스 지원, 취업정보의 제공 등
- ②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지원프로그램 : 개인 및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으로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행정정보, 지리정보, 교통정보, 법률정보, 의료정보, 방재·방법정보, 기업제품정보, 비즈니스 정보, 지적 권리정보 등)의 제공, 인터넷 검색의 지도·지원 등
- ③ 지역문화의 발신 및 지원프로그램 : 지역문화 및 역사자료의 수집과 제공, 지역문화의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통한 발신과 웹아카이브의 공개, 주민의 지역정보에 대한 자발적 아카이브 유인과 수용, 지역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 톨의 제공
- ④ 정보서비스 및 정보해득력 교육프로그램 : 내관이 곤란한 잠재적 이용자, 고령자, 장애자를 위한 자료수집과 다양한 정보서비스(우편대출, 단체대출, 유선 및 온라인 대응서비스 등)의 강화, 정보해득력 교육(IT 강습회 개최, 정보탐색 매뉴얼 제공 등)의 지원
- ⑤ 디지털 자료실 주도의 웹사이트 운영과 온라인 지원프로그램 : 지역 및 국가정보(행정, 법규, 지리와 교통, 건강, 문화 등)에 대한 포털사이트 및 제공환경 구현, 웹정보의 다운로드와 링크기능을 이용한 주제 게이트웨이화, 주문형 생활정보 제공시스템 가동 등
- ⑥ 여러 문화활동과 도서관 자료이용의 연계성 프로그램 : 서예프로그램의 경우 소장자료의 대

10) Heidi Julien and Reegan D. Breu, "Instructional Practices in Canadian Public Librari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27, No.3(2005), pp.289-293.

출유인을 통한 서예역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도서관의 족보자료를 이용한 족보 찾기 및 만들기, AV(또는 CD-ROM) 자료를 이용한 고대문화사 강의와 답사 등

3.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프로그램의 확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의 정보소외(취약)계층은 정보화추세에서 낙오된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신체적 장애·고령화·경제적 빈곤·지리적 격리·사회적 배제 등으로 인하여 정보기술의 소유와 접근 및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차단된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접근제약, 경제적 한계, 교육기회의 부족 등에 기인하는 사회적 약자집단이므로 정보격차의 해소문제도 장애인과 노령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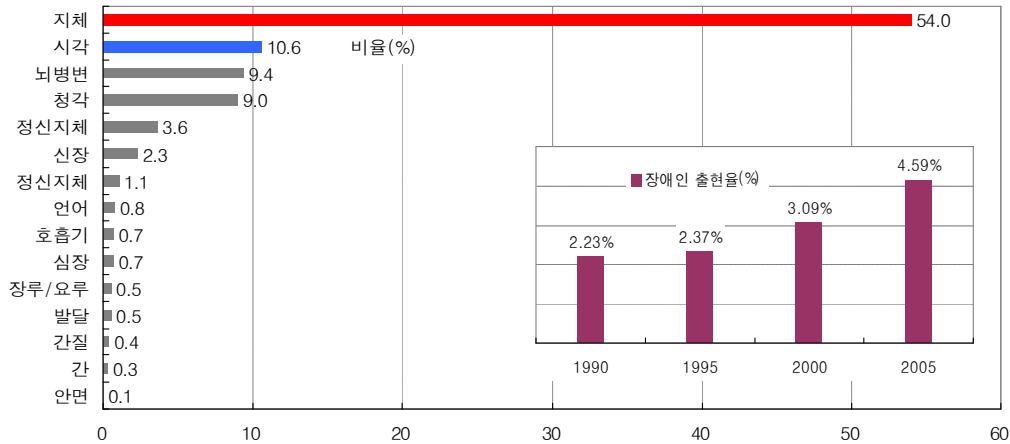
장애인 문제는 1981년 유엔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여 각국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89년말에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칭한 법적 기반 위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 복지증진, 사회통합에 진력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실정법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그 종류를 15가지(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장애인 등록수는 2005년말 현재 1,777,400(남 63.7%, 여 36.3%)에 달하며, 종류별 분포비율과 연도별 출현율의 증가추이는 <그림 10>과 같다. 그러나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등록자를 포함하면 약 2,148,686명¹¹⁾에 달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중도 및 노인성 장애자를 합산한 추정치는 약 450만명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전체 인구의 10%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문제는 특수한 사례로 취급하거나 특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체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정책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가운데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편의시설을 최대한 갖추고,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자발적 참여 및 적응을 위한 평생학습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평생학습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에 따른 자괴감과 소외의식, 사회적 편견과 몰이해 등으로 인하여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삶의 영위,

11) 변용찬 외.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서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p.158.

자기개발, 정보격차 해소, 시대변화에 대한 적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0〉 한국의 장애인 유형별 분포비율과 연도별 출현율(%)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독립생활을 위한 이동권 및 접근권의 최소 요건인 편의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반인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방만할 정도로 많은 반면에 장애인의 자주적 학습 및 사회적응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모든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인은 일반 대중과 동등하게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공공도서관에게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평생학습은 일반인의 그것이 정착된 후에 논의·준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논의·제공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 평생학습을 일반인의 그것보다 차순위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면,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이 아닐 수 없다. 2005년에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성인교육프로그램을 설문 및 면담조사(총 2,915부)한 결과, 직업교육(31.0%), 정보화교육(30.4%), 여가교육(18.2%), 교양교육(14.8%), 문해교육(8.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¹²⁾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의 소외(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바람직한 지향성과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므로 일반인과 공통된 가치 및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 컴퓨터 활용 및 인터넷 이해와 같은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해득력, 노동기회 확대와 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시민의식 고취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교육 등

12) 정인숙 등,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서울 : 국립특수교육원, 2005), pp.135-136.

- ② 심신 장애의 경감과 보완 또는 극복에 필요한 평생학습프로그램 : 가령 적절한 교육과 여가 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아동프로그램, 자주적인 성인생활로 전환하는데 유용한 청소년프로그램, 고용·주거·재정·여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성인프로그램
- ③ 장애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위협을 차단할 프로그램과 자기결정 및 자기주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장애인이 성공적 학습, 작업경험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된 환경에 위치하도록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장애인 법률상식 교육
- ④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특수지식과 능력을 교육시키는 장애인 도우미 프로그램 : 수화, 점자제작, 책 읽어주기, 독서요법 등
- ⑤ 후천적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과 그들을 조력할 수 있도록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학습프로그램 : 정보검색서비스, 원격대출서비스, 온라인 참고서비스, 자료입수방법, 디지털 도서관의 국제표준인 DAISY(Digital Audio Based Information System) 이해 등

나. 노령자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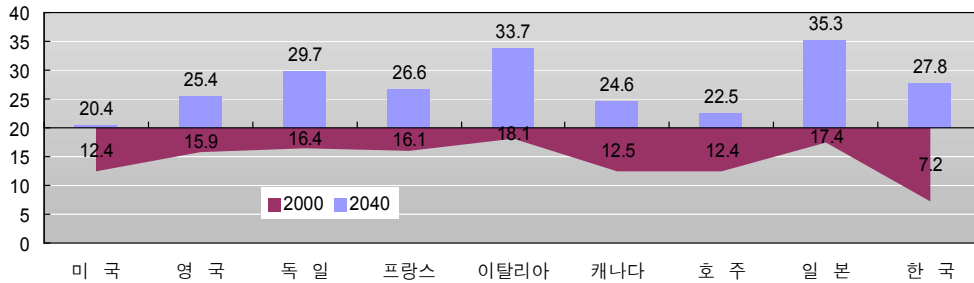
현재보다 미래사회에서 주류적 소외 내지 취약계층으로 부상할 노령자, 통념상 65세 이상의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경제적 자립과 인간다운 삶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 배경은 다각도로 진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가 인구의 노령화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에 8.7% 였으나 2000년에 13.8%로 증가하였고, 2040년에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25.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주요 국가의 2000년 대비 2040년을 도시한 <그림 11>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무려 27.8%¹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간 인구구성의 불균형을 함축하는 고령화는 부양문제, 경제활력 및 성장 잠재력의 저하, 세대간 소득의 재분배, 의료비 급증 등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과장과 부담을 수반하므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2002년 1월에 노인교육의 비전과 종합적 대안인 「고령 인적자원개발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노인학교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노년기의 연장에 따른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부터 소외계층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2004년도에는 총 25개 프로그램(비문해 9개, 노인 8개, 여성 4개, 저소득·저학력 1개, 장애인 1개, 기타 1개)을 선정하였는데, 공공도서관은 2개관¹⁴⁾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¹⁵⁾

13)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14)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방학교 만학 배움터'이고 인천광역시 화도진도서관은 장애



〈그림 11〉 OECD 주요 국가의 노인인구 증가추계(2000 vs 2040)

따라서 모든 공공도서관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역기능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노령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은 비형식, 무형식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센터, 정보문화공간, 평생학습 지원관으로서의 핵심역량을 격차해소프로그램에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향성이다. 이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프로그램의 메뉴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식정보를 활용한 학습프로그램 : 컴퓨터 활용에 관한 교육, 인터넷 이해와 이용에 관한 교육, 도서관 이용지도, 독서법 지도, 독서회 운영의 지도 및 지원, 독서토론회 개최, 종이문화와 디지털세계의 이해, 언어(한글, 한자, 외국어) 습득기회의 제공, 생활법률의 강의 및 상담 교실, 고향 및 동창회 홈페이지의 탐방과 이용,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이해 등
- ② 정보문화 향유프로그램 : 각종 문화행사 및 회합정보의 제공 강연회·전시회 등을 위한 장소제공과 지원, 향토의 유무형 문화재 이해 및 견학, 향토자료의 수집과 보존, 명산고찰의 사이버 순례, 풍수지리와 사주, 향토역사와 유래의 바로 알기, 재래시장의 역사와 현황 지방구전문요 부르기, 음악 및 영화감상 등
- ③ 노인건강 프로그램 : 스포츠와 건강 강좌, 초청강연 건강세미나 한의학과 민간요법 노인 복지시설 등
- ④ 자원봉사 및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 재취업정보와 기회의 제공 지역사회 어른 및 시민으로서의 역할모형,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신기술 습득 등

소의 내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해소는 평생학습의 출발 및 공공도서관의 태동에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전자의 출발이념이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과 소외계

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마음 음악교실과 민들레 독서회'이다.
 15)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백서(서울 : 동부 및 개발원, 2005), p.239.

층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통합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면, 후자의 태동배경은 공개성, 공비 운영성, 무료 이용성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독서환경과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득력 강화 및 평생학습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적 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은 정보소의 내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과 노령자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프로그램은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인적자원 개발의 명제는 모든 국민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한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OECD 선진국은 국민의 기본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다수 국가가 지식정보 중심의 평생학습을 사회통합 및 국가경쟁력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세기 동안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기에는 평생학습을 가장 중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부언하면 지식기반사회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계속하는 가운데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센터 및 문화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소위 다목적 및 다기능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입장에 처하고 있다. 도서관이 만인의 평생학습과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면하거나 부정할 여지는 없지만,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둔갑시키거나 동일시하는 주장과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

고급의 지구촌 도처에 공공도서관이 설립·운영되어 왔고 계속해서 성장·발전해야 하는 불변의 명제와 이유는 당대의 지식문화 유산을 최대한 수집·보존하여 제공하고 후대에 전수함으로써 접근(이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논거로 법령상 요구와 현실적 필요에 따라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의 지원이다. 비록 현재의 사회경제적 및 과학기술적 상황이 어떻게 변모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공도서관은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하이브리드형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차별화된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공공도서관은 ‘누적성과 역사성을 구비한 지식정보의 보고’, ‘모든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평생학습 및 문화생활의 공간’, ‘정보접근 및 이용권의 수호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소장자료, 인간공학적인 시설공간과 정보기술, 유능한 전문인력에서 배태되는 핵심역량과 평생학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해득력을 제고시키는 프로그

램을 개설·제공하며,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해야 한다. 요컨대 신세기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 시나리오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해득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노령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때 비교우위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K C I